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대성
광주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The Effect of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Park Daesung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Gwangju Health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진로 지도 및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J도, G도, B와 G광역시에 소재한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임의선정 및 편의표집을 통하여 450명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8월 7일부터 9일까지 참여 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된 자기기입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4.0 for Window를 이용하여, 42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진로정체감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진로정체감을 확립하고, 전공과 직업선택에 있어서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지원이 요구된다.

주제어 : 응급구조(학)과 대학생,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 진로 지도 및 상담, 취업 지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have effec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studying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and provide basic data for career guidance, career counselling and development of employment guidance program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50 who were randomly selected and conveniently sampled from the Departments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located in J Province, G Province, B and G Metropolitan Cities. The survey lasted from August 7th, 2017 to 9th of the same month after agreement on the survey was obtained from the targets and they were interviewed with the use of an organized questionnaire. 420 copies of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sed with the use of SPSS ver. 14.0 for Window. As a result, it was discovered that career identit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refore, to facilitate preparation behaviors, they should be taught to have career identity, be motivated and supported to do more acti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Key Words : College students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Career ident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Employment guidance

* 본 논문은 2017학년도 광주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No.3017040)

Received 28 September 2017, Revised 30 November 2017

Accepted 20 December 2017, Published 28 Dec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Park Daesung(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Gwangju Health University)

Email: emtppds1@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개인이 선택한 진로는 대인 관계와 생활에 영향을 주며,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데, 궁극적으로 개인의 인생을 결정한다[1]. 진로 발달 이론에 의하면, 대학 시기는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진로 전문화기다[2]. 또한 구체적인 미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진로를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시기이다[3]. 자신의 진로를 정확히 결정하고 구체적인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대학 교육 과정을 마치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대학생에게 진로결정은 매우 중요하다[4].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 대학입시 경쟁으로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대학생이 되어도 자신의 적성 및 흥미, 능력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이다[5]. 또한 직업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진로 계획을 설계하지 못하는 등 진로발달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2,6].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해 정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추었는지를 의미한다[6]. 다시 말해, 의사결정과 관련이 깊고, 애매모호함에 접했을 때 적합한 결정을 하는 능력에 대한 확신과 관련이 있다[7]. 따라서 진로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진로 및 적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여 미래와 자신을 연결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토대라 할 수 있다[4]. 진로정체감은 나 자신과 직업을 이해하여 진로에 대한 명확한 심상을 갖추는 것으로서, 대학과정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6]. 그러므로 진로 상담 및 진로지도와 관련해서 인지, 태도,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진로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적절한 진로를 결정한 후에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로,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실제 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8]. 갑작스런 준비가 아닌 지속적인 자신의 탐색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9], 자신의 내적 특성을 계속해서 작용시켜야 한다[10].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인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고, 진로 정체감을 확립시켜 합리적이고 적절한 진로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독려하는 진로지도와 상담이 요구된다[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등·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었으나 간호학과, 비서학과 등의 학과 중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1,12].

따라서 본 연구는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진로지도 및 상담과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J도, G도, B와 G광역시에 소재한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임의선정 및 편의표집으로 450명을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8월 7일부터 9일까지(3일 동안)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된 자기기입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했다. 배부된 설문지 45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0부를 제외한 42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진로정체감 검사 도구

진로정체감 검사 도구는 Holland, Daiger와 Power[7]가 개발한 진로정체감척도(Vocational Identity Scale; VIS)를 Kim[8]이 번안한 한국형 진로정체감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자신의 이해(9문항), 직업정보의 이해(7문항), 능력 자신감(2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본 연구자가 수정하였고, 각 문항을 역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0.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는 0.935이었다.

2.2.2 진로준비행동 검사 도구

진로준비행동 검사 도구는 An[4]과 Kim[8]에 의해 검증된 총 18문항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정보수집 활동(6문항), 도구구비 활동(5문항), 실천적 활동(7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An[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0.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는 0.923이었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for Window를 이용하여, Mean과 Standard deviation, Analysis of frequency, t-test, One-way ANOVA, Scheffe,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하였다.

2.4 연구의 제한점

연구대상자는 J도, G도, B와 G광역시에 소재한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에서 남성이 209명(49.8), 여성이 211명(50.2%)이었고, 성적에서 A학점이 139명(33.1%), B학점이 168명(40.0%), C학점이 113명(26.9%)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102명(24.3%), 2학년이 113명(26.9%), 3학년이 111명(26.4%), 4학년이 94명(22.4%)이었다<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진로정체감 하위요인의 자신의 이해($t=3.089$, $p<0.05$), 직업정보의 이해($t=3.202$, $p<0.05$), 능력 자신감($t=2.836$,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성적에서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하위요인의 자신의 이해($F=3.676$, $p<0.05$), 직업정보의 이해($F=3.777$, $p<0.05$), 능력 자신감($F=4.822$, $p<0.05$)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 사후검증 결과, A학점과 B학점이 C학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년에서 4학년 일수록, 즉 학년이 높을수록 자신의 이해($F=9.573$, $p<0.001$), 진로정체감($F=7.069$, $p<0.05$), 능력 자신감($F=6.071$,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후검증 결과, 자신의 이해, 능력 자신감에서 4학년, 3학년이 1학년보다, 직업정보의 이해에서 4학년, 3학년이 2학년, 1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정보수집 활동($t=2.588$, $p<0.05$), 도구구비 활동($t=2.324$, $p<0.05$), 실천적 활동($t=2.787$,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성적에서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정보수집 활동($F=5.364$, $p<0.05$), 실천적 활동($F=4.775$,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후검증 결과, 정보수집 활동에서 A학점이 B학점 및 C학점보다, 실천적 활동에서 A학점, B학점이 C학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년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정보수집 활동($F=8.654$, $p<0.001$), 도구구비 활동($F=8.245$, $p<0.001$), 실천적 활동($F=7.158$,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후검증 결과, 정보수집 활동과 도구구비 활동에서 4학년, 3학년이 1학년보다, 실천적 활동에서 4학년이 2학년, 1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3.4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 자신의 이해는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정보수집 활동($r=0.799$, $p<0.01$), 도구구비 활동($r=0.778$, $p<0.01$), 실천적 활동($r=0.793$, $p<0.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직업정보의 이해는 정보수집 활동($r=0.741$, $p<0.01$), 도구구비 활동($r=0.739$, $p<0.01$), 실천적 활동($r=0.744$, $p<0.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능력 자신감은 정보수집 활동($r=0.770$, $p<0.01$), 도구구비 활동($r=0.766$, $p<0.01$), 실천적 활동($r=0.768$, $p<0.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Division		N	%
Gender	Male	209	49.8
	Female	211	50.2
Grade	A	139	33.1
	B	168	40.0
	C	113	26.9
School year	1	102	24.3
	2	113	26.9
	3	111	26.4
	4	94	22.4

<Table 2> Differences in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Career identity					
		Self-understanding		Interests of employment information		Confident ability	
		Mean	SD	Mean	SD	Mean	SD
Gender	Male	2.99	0.76	3.02	0.79	3.03	0.76
	Female	2.62	0.80	2.63	0.70	2.70	0.69
	t	3.089*		3.202*		2.836*	
Grade	A ^a	3.01	0.74	3.09	0.86	3.07	0.73
	B ^b	3.00	0.73	3.02	0.72	3.05	0.71
	C ^c	2.81	0.86	2.84	0.84	2.84	0.84
	F(Scheffe)	3.676*(a,b>c)		3.777*(a,b>c)		4.822*(a,b>c)	
School year	1 ^a	2.72	0.26	2.90	0.26	2.85	0.19
	2 ^b	2.87	0.77	2.91	0.75	2.93	0.76
	3 ^c	3.18	0.74	3.19	0.87	3.18	0.75
	4 ^d	3.20	0.71	3.21	0.84	3.19	0.71
	F(Scheffe)	9.573**(d,c>a)		7.069*(d,c>b,a)		6.071*(d,c>a)	

**p<0.001, *p<0.05

<Table 3>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Tools supporting activity		Practical activities	
		Mean	SD	Mean	SD	Mean	SD
Gender	Male	3.06	0.81	3.03	0.85	3.12	0.79
	Female	2.74	0.63	2.71	0.91	2.77	0.87
	t	2.588*		2.324*		2.787*	
Grade	A ^a	3.09	0.81	3.05	0.87	3.18	0.73
	B ^b	2.85	0.80	3.05	0.79	3.14	0.78
	C ^c	2.83	0.82	2.86	0.92	2.92	0.89
	F(Scheffe)	5.364*(a>b,c)		2.435		4.775*(a,b>c)	
School year	1 ^a	2.58	0.42	2.25	0.40	2.88	0.63
	2 ^b	2.95	0.77	2.92	0.86	2.90	0.71
	3 ^c	3.25	0.83	3.22	0.84	3.02	0.79
	4 ^d	3.29	0.74	3.23	0.81	3.30	0.81
	F(Scheffe)	8.654**(d,c>a)		8.245**(d,c>a)		7.158*(d>b,a)	

**p<0.001, *p<0.0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ivision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Tools supporting activity	Practical activities
Self-understanding	0.799**	0.778**	0.793**
Interests of employment information	0.741**	0.739**	0.744**
Confident ability	0.770**	0.766**	0.768**

**p<0.001

<Table 5> Effect of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ivision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Tools supporting activity						Practical activities					
	B	SE	β	t	Collinearity diagnostic		B	SE	β	t	Collinearity diagnostic		B	SE	β	t	Collinearity diagnostic	
					Tolerance	VIF					Tolerance	VIF					Tolerance	VIF
Self-understanding	0.49	0.06	0.47	8.750**	0.211	4.733	0.43	0.06	0.38	6.901**	0.211	4.733	0.46	0.06	0.44	8.155**	0.211	4.733
Interests of employment information	0.14	0.05	0.14	2.715*	0.236	4.242	0.19	0.06	0.17	3.286*	0.236	4.242	0.16	0.05	0.16	3.082*	0.236	4.242
Confident ability	0.27	0.06	0.26	4.747**	0.205	4.868	0.33	0.06	0.29	5.173**	0.205	4.868	0.27	0.06	0.25	4.556**	0.205	4.868
R ²	0.669						0.647						0.663					
F	27.510**						24.084**						26.872**					
D ²	1.968						1.896						1.789					

**p<0.001, *p<0.05 D²: Durbin-Watson

3.5 진로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정보수집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정체감 하위요인으로는 자신의 이해($\beta=0.47$, $p<0.001$), 능력 자신감($\beta=0.26$, $p<0.001$), 직업정보의 이해($\beta=0.14$, $p<0.05$)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0.667을 보였다.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도구구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정체감 하위요인으로는 자신의 이해($\beta=0.38$, $p<0.001$), 능력 자신감($\beta=0.29$, $p<0.001$), 직업정보의 이해($\beta=0.17$, $p<0.05$)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0.645를 보였다.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실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정체감 하위요인으로는 자신의 이해($\beta=0.44$, $p<0.001$), 능력 자신감($\beta=0.25$, $p<0.001$), 직업정보의 이해($\beta=0.16$, $p<0.05$)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0.660을 보였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진로 지도 및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하위영역 간의 차이는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진로정체감 하위요인의 자신의 이해, 직업정보의 이해, 능력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An[4]과 Baek[13]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Kim[6]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Lee[14]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취업을 위한 구체적 전략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성적에서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하위요인인 자신의 이해, 직업정보의 이해, 능력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후검증 결과, A학점과 B학점이 C학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Kwon[15]의 연구에서도 학점이 4.0점 이상이 대학생이 3.0점 미만의 대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성적이 높을수록 자신의 목표, 능력, 흥미 등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구체화된 진로정체감 형성의 발달과 학업성적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 및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에서 4학년 일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자신과 직업정보의 이해, 능력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후검증 결과, 자신의 이해, 능력 자신감에서 4학년, 3학년이 1학년보다, 직업정보의 이해에서 4학년, 3학년이 2학년, 1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Bae 등[16]의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4학년이 3학년보다 진로정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정보에 대한 이해 및 능력·자신감이 저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계열학과와 직업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체육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won[15]의 연구에서는 3학년, 1학년, 4학년, 2학년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정체감은 직업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자기 정체감으로서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목표, 흥미, 그리고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청사진이다[17]. 또한 진로정체감은 확실성, 명확성, 안정성, 정교성, 현실성 등 직업적 개념을 실행에 옮기는 진로선택과 관련해 그 목표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이다[18].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지고 진로정체감 형성과 확립이 진로선택 및 결정에 있어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19]. 따라서 대학생이 자신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 및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로지도가 중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하위영역 간의 차이는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실천적 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즉 응급구조(학)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won[15]의 체육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준비 노력과 진로탐색 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Bae 등[16]의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취업준비 노력과 비공식적인 직업탐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적에서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정보수집 활동, 실천적 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후검증 결과, 정보수집 활동에서 A학점이 B학점 및 C학점보다, 실천적 활동에서 A학점, B학점이 C학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학점이 높을수록 본인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 자신에 대한 정보와 관심, 직업의 현황, 전망, 입직정보 등을 효율적이고 합리

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Kwon[15]의 연구에서도 성적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에서 진로준비노력과 진로탐색은 3.5점 이상-4.0점 미만은 3.5점 미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진로상담에서는 4.0점 이상이 4.0점 미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학년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실천적 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후검증 결과, 정보수집 활동과 도구구비 활동에서 4학년, 3학년이 1학년보다, 실천적 활동에서 4학년이 2학년, 1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An[4]의 연구에서도 진로준비행동은 4학년이 3학년, 2학년,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Kwon[15]의 연구에서도 4학년이 1학년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와 Park[21]의 연구에서도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ae 등[16]의 연구에서도 4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준비행동 하위요인 중 취업준비강도, 공식적 직업탐색, 예비적 직업탐색, 적극적인 취업탐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할 수 있겠고, 명확한 방향성 있는 진로선택과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는 세심한 지도가 요구된다 하겠다.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업정보의 이해, 자신의 이해, 능력 및 자신감 등에 해당되는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인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실천적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진로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16].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은 자신을 이해하고 진로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추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 해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하겠다[22].

다시 말해, 진로정체감이란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상을 의미한다 [23]. 그러므로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의 적극적인 진로 준비행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고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진로정체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실천적 활동에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자신의 이해, 능력 자신감, 직업정보의 이해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Choi[10]의 연구에서는 체육전공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것보다는 결정된 진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충실도의 행동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는 자신감을 통해서 진로준비행동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Kim[6]과 Yang 등[2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은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Seong 등[11]의 연구에서도 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어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전문대학 직업진로 실태조사에서도 대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진로교육으로 인턴십이나 견학 등 직장체험 이었다 [25].

또한 진로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나 혹은 진로결정 이후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26] 그러므로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은 산업체의 취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내·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체 견학, 직장체험 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지역 응급구조(학)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진로정체감이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고, 아울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의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진로정체감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실천적 활동에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자신의 이해, 능력 자신감, 직업정보의 이해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진로정체감을 확립하고, 전공과 직업선택에 있어서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전공 관련 교과수업 등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Gwangju Health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5(No.3017040).

REFERENCES

- [1] J. H. Yang.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 [2] C. G. Kim. "Career education and career counseling." Seoul, Dongmunsa, 2001.
- [3] D. E. Super.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1957.
- [4] H. J. An. "The Influence of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type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3.
- [5] E. J. Lee. "The effect on college students' separation; individualization to personal relationship and career 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2015.
- [6] M. J. Kim.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career

- decision-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2011.
- [7] J. L. Holland, G. D. Gottfredson, & P. G. Power.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9, pp. 1191-1200, 1980.
- [8] B.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 [9] M. S. Cho, K. S. Choi.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8, No. 3, pp. 1085-1099, 2007.
- [10] J. I. Choi, T. Y. Han, Y. H. Lee.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of physical education major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3, No. 5, pp. 113-126, 2014.
- [11] J. A. Seong, S. Y. Bang, S. Y. Kim.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Vol. 2, No. 2, pp. 29-38, 2012.
- [12] J. W. Han. "Social support and career identity influ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Korean Association of Secretarial Studies*, Vol. 22, No. 52, pp. 117-140, 2013.
- [13] H. J. Baek. "An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12.
- [14] H. J. Lee. "Gender differences in effects of social anxiety, career decision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ve behavior on undergraduates' career identity."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1, No. 2, pp. 109-125, 2008.
- [15] H. J. Kwon. "The relations among the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2010.
- [16] S. S. Bae, H. J. Noh, S. J. Mu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by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on job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15, No. 1, pp. 45-59, 2014.
- [17] J. L. Holland.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5.
- [18] H. L. A. Tinsley.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41, pp. 209-211, 1992.
- [19] Y. O. Yang, S. O. Lee. "The 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2, pp. 979-989, 2012.
- [20] J. K. Lee. "Influence of decision making styles on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community recreation and spor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37, pp. 13-26, 2009.
- [21] Y. A. Park. "The relationship among perfectionism of college students, their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11.
- [22] J. Y. Shin, S. S. Park, J. E. Hyung.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5, No. 1, pp. 19-35, 2012.
- [23] S. K. Sin, T. J. Choi, S. M. Park, E. Y. Lee, Y. M. Kim. "Theories and practices of psychological

testing.” Seoul, Seo Hyeonsa, 2007.

- [24] J. H. Yang, B. W. Kim.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1, No. 2, pp. 57-71, 2008.
- [25] J. H. Hyun, S. H. Kim, E. Y. Kim. “College career guidance, vocational Survey Report.”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09.
- [26] J. A. Seong, S. Y. Bang, S. Y. Kim.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Vol. 2, No. 2, pp. 29-38, 2012.

박 대 성(Park Daesung)



- 2005년 8월 :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0년 8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07년 3월 ~ 2009년 2월 : 춘해보건대학 응급구조과 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 응급구조과 교수
- 관심분야 : 응급처치학, 보건학(행정)
- E-Mail : emtppds1@naver.com